


[로그인/회원가입](#)
[창닫기](#)
[홈](#) > [뉴스](#) > [뉴스](#)

## 정음 보성장학재단 김한술 이사장 후진양성 '귀감'

자비로 모교 후배 등 초등생 7명 캐나다 어학연수 추진... 초.중.고생 확대 예정

2017년 01월 10일 (화) 23:24:19

김상옥 기자 ✉ [kso1283@daum.net](mailto:kso1283@daum.net)

(재)정음보성장학재단이사장인 김한술 서울상공회의소 중구상공회 회장(사진/ 주. 광명데이콤 대표)의 선행이 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보성초등학교(교장 박영선)에 따르면 오는 김 회장은 1월 29일 보성초 6학년(4명)과 중구청 관내 학생 3명을 포함 총 7명을 1인당 400만원씩 순수자비로 지원,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보낼 예정이다.

김 회장은 캐나다 버는 지역으로 영어연수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선정기준을 계획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어학연수원과 협의 후 대상 학생들의 연수 계획을 확정했다.



▲김한술 회장

이에 따라 대상 학생들은 1월 29일부터 4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2월26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한술 회장은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선발에 앞서 지난 6월 미국현지에 가서 초.중.고 서너곳을 다니면서 학생들을 위한 사전답사를 했다”고 연수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이어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간 동안 학생들의 신변 안전문제가 염려스러워 현지경험에 대한 학부모들의 정보도 얻으려 했으나 불가능해 직접 사전답사에 나서게 됐다”고 준비과정을 상기했다.

연수를 힘겹게 준비하던 김 회장은 때마침 지인을 통해 캐나다 정부와 연계된 학교에서 학생들 신변 안전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소식에 곧바로 캐나다 현지로 한 걸음에 가 직접 둘러보고 확인했던 것.

이 덕에 애초 미국이 아닌 캐나다로 연수지를 최종 결정함에 따라 비용이 더 들게 됐다.

이런 과정을 거친 김한술 회장은 1차로 초등학생들을 보내고 결과가 좋으면 매년 초.중.고생도 사비로 연수를 보낼 예정이다.

더불어 본인이 이사로 있는 중구장학재단에서도 2018년부터 초.중.고 학생 30명을 어학연수를 보낼 재원도 이미 확보해 뒀다.

김 회장은 “이후 결과가 좋으면 보성초장학재단과 중구청장학재단이 MOU를 체결해 공동으로 어학연수를 보내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렇게 되면 보성초 학생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희망찬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지금은 건강이 많이 회복됐지만 무엇보다 몇 년 전 건강악화로 인해 많은 고생을 했을 때 아내 송태옥 여사의 적극적인 내조로 사회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다”며 “어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순수한 사회봉사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동기도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학생들이 앞으로 애착심을 가지고 성인이 되더라도 항상 모교를 생각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기회에 견문을 넓혀 큰 야망을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하길 바라며 나라의 큰 일꾼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광명데이콤 대표이사인 김한술 회장은 1972년 광명치재를 창업, 1994년 법인으로 전환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눈 팔지 않고 치과재료에 전념해 국내 치과교정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켰다.

또 고향인 정읍에 대한 깊은 애향심으로 2010년 정읍시와 협약을 맺고 매년 1천만원 상당의 백미를 기탁하고 있다.


수재 때에도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모교인 보성초등학교가 폐교직전의 위기에 처한 사정을 알고 3억원을 쾌척, 2012년 장학재단을 설립해 지원했다.

현재는 주변에서 지원하는 학교로 변모해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모범사례로 선정돼 별도의 지원을 받아 최근 수년동안 학생 수가 증가해 교실수를 늘려야할 정도로 성장세를 타고 있다.

김한술 회장은 2016년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고 한국치과기재 산업협회 회장을 비롯 중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수석 부회장, 중구 문화원 이사 및 장학재단 이사, 남대문세무서 명예서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 2013년에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 정읍시사(<http://www.jsisa.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